

270쌍 결혼시킨 중매의 달인 '틴더 신부님'

스페인 발렌시아의 페르난도 쿠에바스 신부는 '틴더 신부님'이라고 불린다. 이는 데이팅 앱인 '틴더'에서 따온 것으로, 그의 놀라운 중매 능력 때문에 붙여졌다.

페르난도 신부의 중매 경력은 14년 전에 시작됐다. 당시 살바라는 이름의 젊은 신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던 신부에게 한 무리의 젊은 여성들이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왔다. 신부는 살바의 부탁으로 그들 가운데 한 명을 살바에게 소개해주었고, 5개월 후 살바는 결혼에 이르렀다.

그 후 페르난도 신부는 신자들을 위해 중매쟁이로 나섰다. 그는 이름, 성별, 나이, 출생 연도, 키, 전공, 현



▲ 270쌍의 부부를 탄생시킨 페르난도 쿠에바스 신부(오른쪽).

사진=diodistrito.pt

재 직업, 취미, 장점, 단점, 배우자에게 바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에 대한 혌신 정도 등이 담긴 양식을 만들어 짹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남녀에게 상대방의 정보와 사진이 담긴 파일을 보낸 후 남녀 모두 만나기를 원하면 남자에게 여자의 번호를 알려준다.

이렇게 신부가 중매를 선 횟수는 지난 14년 동안 수천 번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결혼에 골인한 커플은 270쌍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를 가운데 이혼한 부부는 단 한 쌍도 없다는 점이다.

현재 신부는 연인을 찾는 신자들로부터 매일 20여 건의 요청을 받고 있다.

여친 전화 덕에 목숨 구한 억세게 운 좋은 남자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차에서 내린 뒤 대형 낙석사고를 피해 목숨을 구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살고 있는 마우리시오 헤나오는 지난 16일 집 앞 도로 갓길에 세워둔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 운전석에 앉아 잠시 쉬고 있던 중 여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여자친구로부터 "가방을 집에 두고 온 것 같아. 확인 좀 해줘!"라는 부탁을 듣고 차에서 내렸다.



▲ 대형 낙석이 덮쳐 반파된 헤나오의 자동차. 사진=KCAL 뉴스 캡처

그런데 그는 집으로 들어가 가방을 찾고 있던 중 갑자기 '꽝꽝' 대는 굉음을 들었다. 놀라서 밖으로 나온 헤나오는 차 바로 옆 산비탈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 떨어지고 있는 걸 목격했다. 그리고 지름 1.2m에 달하는 바위가 헤나오의 차량 운전석 바로 위로 떨어졌고 자동차는 반파됐다. 계속 차 안에 있었다면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헤나오는 "여자친구의 전화가 아니었다면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복권을 사야 할 것 같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한편 이번 산사태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같은 동네 주민들도 차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CNN은 캘리포니아 전역에 3주간 몰아친 기록적인 폭풍으로 낙석이 차량을 덮쳤다고 전했다.

아르헨 소녀, '틱톡 챌린지'하다 사망



▲ '블랙아웃 챌린지' 하다 사망한 밀라그로스 소녀. 사진=infoveloz.com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 때문에 조카를 잃은 이모가 "위험한 챌린지를 따라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지난 15일 아르헨티나 산타페주 산로렌소에서 살고 있는 12살 소녀 밀라그로스의 부모는 밀라그로스가 자신의 방에서 목에 줄을 감고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밀라그로스가 틱톡에서 유행하는 '블랙아웃 챌린지'를 시도하다가 사망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밀라그로스가 블랙아웃 챌린지를 시도하면서 라이브방송을 했고, 친구들은 그를 응원까지 한 사실도 확인했다. 블랙아웃 챌린지는 숨이 막혀 기절할 때까지 목을 줄라 실신한 뒤 깨어나 당시의 경험을 공유하는 챌린지다. 워낙 위험해 세계 각지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7월 미국에선 블랙아웃 챌린지를 시도하다가 사망한 어린이들의 부모가 틱톡을 고소하기도 했다. 틱톡의 알고리즘이 위험한 영상을 어린이들에게 노출시켜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밀라그로스의 이모 랄리도 조카의 죽음에 틱톡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랄리는 틱톡을 고소하는 대신 틱톡을 이용해 추가 사고를 막기로 했다.

랄리는 조카 밀라그로스의 사진을 들고 "사진 속 아이는 내 조카, 밀라그로스야. 틱톡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를 따라 하다가 생명을 잃었단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틱톡에 공유했다. 그는 틱톡 사용자들에게 다시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자신의 영상을 널리 퍼뜨려줄 것을 당부했다.

Kyung Sook Yu, D.D.S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
부터**

**틀니
\$1500**

**Free
임플란트 상담**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목 9am - 6pm**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